

근대적 이념형을 찾아서

In Search of a Modern Ideal Form

정인하 /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Jung In-Ha

한국의 근대건축사는 어려웠던 사회여건 때문에 단절과 왜곡으로 점철되었다. 자생적으로 근대건축을 배태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근대건축이 태동하던 시기에 식민지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수용할 수조차 없었다. 당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근대건축을 일정한 시간 격차를 두고 수용하였지만 한국의 경우 서구건축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일본을 통해 수입되었고, 이런 상황은 한국의 근대건축을 매우 기형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것은 주로 당시 일본이 처한 상황 때문에 발생했다. 즉 일본 자체가 서구문명을 수용하던 입장이었고, 또 그것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것만을 선별해서 받아들인 상황이었다. 더욱이 1930년대 이후 일본사회에 군국주의와 전체주의가 팽배하면서, 서구의 근대건축을 배태시킨 사회주의적 이념과 근대정신을 제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국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본의 이런 경향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시대 한국의 근대건축은 서구 건축의 양식을 모방하고 있었을 뿐 그것에 내재된 정신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서구건축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렸고, 따라서 한국의 건축가들은 근 30년 이상을 국제적인 건축조류에서 완전히 밀려난 채 변방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한국건축과 서구건축의 직접적인 만남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한국사회가 건축을 실현할 만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고, 따라서 제대로 건설에 투자할 여건이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3년동안의 내란으로 인해 다시 건축의 공백기를 맞게 된다. 따라서 서구의 근대건축이 서구로부터 한국에 직접적으로 도입된 것은 전쟁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부터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부터 한국건축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까지 한국 건축계의 지형도를 간략하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6.25 이전부터 사무실을 유지했던 곳은 김태식 건축사무소 정도이고, 개인으로 보자면 박학재, 이희태, 강봉진, 홍순오 정도가 해방 직후부터 설계실무에 꾸준히 종사한 사람들이었다.”(송률,

한국 현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119쪽) 그리고 전쟁 직후 1953년에 이천승과 김정수의 합작으로 종합건축이 설립되었고, 그리고 신건축문화연구소, 구조사 건축기술연구소 등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1955년 이광노는 페이(I.M. Pei) 사무실에서 일년간 머무르다 귀국하면서 무애건축사무소를 개설하였다. 1956년 건축가 김종업이 르 꼬르뷔제 사무실을 그만두고 귀국하여 서울에 자신의 사무실을 열었다. 그리고 그해에 김종성은 미스 반 데 로에가 있는 I.I.T.에 입학하기 위해 한국을 떠났다. 1959년 일본에서 공부하던 김수근이 국회의사당 현상설계의 당선을 계기로 귀국하여 강병기, 박춘명과 함께 설계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이상이 1960년대 이전까지 한국의 건축계를 개략적으로 그려본 모습이다. 이 시기동안 건축가들에 의해 지어진 건물들을 살펴보면, 학교시설과 상업 시설이 주를 이루었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된 기능적인 건물이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 이후 한국건축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과 양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글이 갖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관점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 글에 내재된 여러 한계 때문이다. 역사가들이 과거의 사실들을 기술할 경우 그들을 어떤 관점,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느냐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재와의 시간적 거리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과거전체를 바라볼 수 없을 경우 더욱 그렇다. 지금의 시점에서 1960년대 이후의 건축을 조망한다는 것은, 전체 숲을 보지 않고 그 숲의 전체 지형을 논하는 것과 흡사하다. 그만큼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으며, 그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 글을 쓰면서 계속해서 불안감이 엄습해 왔는데, 그것은 넓은 숲속에 난 오솔길을 몇가지 과학적 방법론에 의지한 채 위태롭게 걸어가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주관적으로 기술할 때 느껴지는 그 아슬아슬함 때문이었다. 전체에 대한 통찰력은 고사하고 그나마 그 숲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근거가 될만한 정확한 방법론과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타푸리나 프램턴이 현대건축을 기술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통해만 과거의 건축현상들을

기술하려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역사서술의 객관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한국의 현대건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은 역사를 단선적이지 않고 복수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과거의 역사서술에서(헤겔의 역사철학이 그 대표적인 예지만) 역사가들은 하나의 시점에서 원근법적으로 조망되는 방법을 흔히 추구해왔다. 거기에는 기원과 끝이 있다. 그 조망의 끝은 마치 퍼스펙티브의 소실점처럼 하나의 목적을 가지는 폐쇄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퍼스펙티브에 소속되지 않는, 즉 그것이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타자(他者)로 취급되어 배제되고 억압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역사연구는 이런 정확한 시점과 닫혀진 목적을 거부하고 있다. 과거의 닫혀진 역사서술은 한 명의 저자가 자신의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식 역사기술은 복수의 주체들이 역사적 공간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열려진 장으로 취급한다. 다만 각 시대들은 각기 강조점들이 마치 주름을 만드는 것처럼 솟아 오르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역사는 하나의 장 속에서 펼쳐지는 이런 주름들의 지형도라고 간주되는 것이다. 이런 지형도를 가르는 것은 각각의 사건이나 현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매듭과 분절, 그리고 충돌에 의한 경계선이다. 그 경계선들은 특수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역사적으로 다수의 계보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런 계보들을 역으로 추진해 나가자 한다. 이 경우 종래의 기술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기존에 주로 의존했던 방식이 시대구분과 그에 따른 건축가들의 세대별 구분이었다. 물론 역사에서 시간의 의미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것을 서술하는 사람의 임의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시간적으로 동질하게 채워져 있고, 표면이 매끄러운 역사서술이 갖는 허구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현대건축이 갖는 정확한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두가지 축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하나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축이고, 또다른 하나는 건축의 본원적 가치라는 축이다. 한국의 현대건축은 이 두가지 축을 중심으로 중심적인 씨와 줄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가운데 시간의 축은 비교적 짧은 시간을 갖는 1960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일어난 다양한 건축현상들을 함축적으로 정의할 만한 말을 꼬집어 낸다면 '근대적 이념형을 찾아서'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 30년의 기간동안 서구에서 몇 백년을 걸쳐 진행시켜온 근대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전에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엄청난

서구문명을 수용하면서 건축가들은 한편으로는 서양의 근대건축을 한국적 토양에 알맞게 수용하는 작업을 해야 했고, 한편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건물유형들을 디자인해야만 했으며, 또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의 팽창과 주거난에 대응하기 위해 엄청난 물량의 주택과 도시공공시설들을 건설해야만 했다. 물론 이런 급격한 변화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라는 초유의 참사를 불러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건축가와 건축인들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보여준 노력은 인정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면모를 일신하고 완전히 근대적 사회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건축은 이 기간동안 건축가의 개성적인 미적 탐구의 대상으로, 제도적 장치로서, 디자인 방법과 설계 프로그램의 구현물로서, 특수한 직분의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는 것으로서 하나의 틀을 형성해 나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30년의 기간은 앞으로 전개될 한국건축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진다.

이 기간은 매우 동질해 보이나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미세한 균질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1960년을 중심으로 그 전과 그 후 시기를 구분하는 주요 동인은 주로 건축계 외부에서 일어났다.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강력한 경제개발정책을 시행했고, 이것은 급속한 도시인구의 팽창과 이에 따른 도시개발을 촉진시켰다. 1960년대 한국건축은 어떤 경우이든 이런 당대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과 연계되게 된다. 문화적으로 볼 때 극도로 피상적이고 경직된 태도를 취하였던 군사정권의 문화주체들은 전통적인 형태에 기반을 둔 건축을 요구하였고, 이것은 한국건축의 정체성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 논쟁은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전통건축이 다양한 측면들이 건축들에 의해 탐구되었다. 강력한 경제개발에 따른 효과가 건축분야에 전달되기 시작한 때는 1960년대 후반이라고 생각하고, 대도시의 도심에 대규모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이것은 새로운 건축기술의 도입과 그에 따른 다양한 미적 효과의 실험이 이어지게 되었다. 도시인구 인구팽창에 따른 주거난과 도시 하부구조의 취약성은 매우 민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나 김수근을 제외하고는 건축가들이 이 문제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건축가들이 가지는 한계라고 생각한다. 김수근의 경우도 1960년대 여의도 도시계획과 세운상가 설계를 통해 나름대로 서울 도시계획에 참여했으나 그 결과는 별로 신통치 않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몇가지 변화가 감지되는데 중동건설 붐을 타고 건설회사의 시공기술이 한단계 상승해서 건축가들의 디자인 의지를 보다 충실하게 구체화할 수 있었

다. 또 서울의 강남개발로 대변되는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전국의 대도시 곳곳에 지어지게 되었다. 소득의 향상으로 각 가정에 싱크대와 욕조시설과 같은 위생설비가 일반적으로 보급되었고,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시설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의 고층건물들이 도심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자가 100명 이상인 대규모 사무실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런 변화와 함께 또 한가지 중요한 변화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발주한 건물의 설계가 대부분 연고(緣故)에 의해 특정인에게 의뢰되었던 반면 이 시기에 이르러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은 현상설계를 통해 설계자가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물론 이 현상설계의 심사가 공정치 못하고 또 여기에 참석한 심사위원들의 자질이나 안목이 불충분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지만 많은 건축가들에게 대형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점에서 이런 제도적 장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이와 유사한 변화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개최를 전후하여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는 거의 30년 이상 지속된 군사정권이 마감되고,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사회는 20년이상 지속된 경제성장의 과실을 즐기는 분위기였고, 경제개발을 통한 성장보다는 부의 분배와 평등의 이념이 사회전반의 기류를 관통하였다. 건축계의 경우 김수근과 김종업을 비롯한 많은 건축가들이 이 시기를 전후로 타계하면서 보다 젊은 건축가들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민건협'의 창립과 40대 건축가들을 주축으로 한 4.3그룹의 대두는 이런 변화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들 건축가들은 이전의 선배건축가들이 가지는 중심 지향적인 구심성과 경직된 사고틀에서 벗어나서 보다 원심적이고 중심으로부터 이탈된 그러면서도 분명한 차별화는 일어나지 않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한국의 현대건축을 구성하는 두 번째 축은 건축이 갖는 본원적 가치들인데 이들은 다양하게 나타난 건축현상을 명료하게 이해시켜 준다고 생각한다. 즉 '건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한국의 현대 건축가들은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디자인을 통해 그것을 강조하려 했다고 보고, 건축의 본원적 가치를 드러내면 건축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들은 자연히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건축은 흔히 예술과 기술을 합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건축이 가지는 독특한 가치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조형예술과 비교하여 건축은 분명히 독특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것은 하나의 장소와 지역에 그 뿌리를

굳건히 내디뎌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이나 조각작품은 아무 곳에 전시되어도 무방하지만 건축작품을 위해서는 '바로 그곳'이라는 장소가 필요하다. 건축에서 장소성, 품토성, 토착적 정서를 포괄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를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현대건축의 경우 지역주의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를 특징짓는 핵심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역주의를 바라보는 태도는 건축가마다 달랐는데 이것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과거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시각에서 바라다보며 이들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경향이고, 또다른 하나는 과거의 건축형태를 별다른 비판없이 주요 모티브로 취하려는 수용적 태도이고, 마지막은 토착적인 지역주의로 부를만한 것으로 주로 벽돌과 경사지붕을 이용하여 유기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면 1960~1970년대까지는 주로 형태적인 면을 두고 많은 논쟁을 벌인 반면 1980년대 들어와서는 공간이나 재료의 물성과 같은 문제들이 건축가들에 의해 보다 자유롭게 논의되었다. 20년간의 논쟁을 통해 '그 시대 가장 뛰어난 건축이 새롭게 전통을 창조한다'는 생각이 건축가들 사이에 하나의 합의점으로 도출되었고, 이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논쟁보다는 건물자체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축가들의 관심을 돌리게 한 것이다.

두번째로 건축은 사람의 삶을 물리적으로 건설하는 구축성(Tectonic)을 가지고 있다. 구축성의 문제는 최근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은 구조적인 부재들이 부분에서 어떻게 전체로 통합해 나가고, 재료의 물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구조체와 재료의 문제를 건축미학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는 가장 건축적인 가치와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재료의 물성이나 구조체의 구축방식은 단순한 실체로 머물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표상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의 구축성은 건축의 가장 근본적인 작동요소면서 동시에 미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표상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향을 대변하는 건물들은 주로 고층건물이나 대형공간을 필요로 하는 체육관시설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새로운 공법의 사용이 어떤 유형의 건물보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서양과는 달리 한국의 현대건축에서 건축디자인을 뒷받침할 만한 구조나 시공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다. 건축 디자인과 관련하여 건축가의 의지를 충실하게 실현시켜줄 정도로 기술력이 향상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김종업이 막구조의 개념으로 설계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지붕이 10년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은 이런 사실을 극단적으로 잘 보여 준다. 마찬가지로 김종업이 설계한 삼일로 빌딩은 미스 반 데 로에의 시그럼 빌딩의 모티브를 그대로 도입하고 있지만 미스의 건물

과 비교하여 기둥의 두께가 너무나 얇아서 실내에서의 느낌이 전혀 다르다. 이것은 고층건물에 대한 기술적인 노후가 축적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설계이기 때문에 일어났다. 한국의 건축가들에게 베에르 네르비, 베르나르 라파이유, 오토 프라이, 피터 프라이스와 같이 고도의 창의력을 가진 구조전문가가 전무하다는 사실은 비극적인 현실이다. 기술력의 부재는 고층건물의 설계에서 많은 외국건축가들을 참여시킨 데서 잘 드러난다. 실제로 롯데호텔과 롯데월드, 프라자호텔, 교보빌딩, 대생빌딩, 국제빌딩, 중앙일보 신사옥, 종합무역센터, LG 트윈타워, 한솔빌딩, 동부그룹사옥과 같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고층건물들이 외국인에 의해 설계되었던 것이다. 물론 전혀 기술력이 축적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건축인들이 기울인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다. 1950년대 커튼월의 도입, 1960년대 노출 콘크리트의 사용, 1960년대말 PC 콘크리트를 이용한 고층건물의 설계, 1970년대 벽돌의 사용, 1980년대 케이블 구조와 막구조 개념의 도입은 한국의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기술성을 대변한다.

세번째로 건축은 동시대의 지배적인 생각들을 제도화하는(Institutionalize) 기능을 가진다. 이것은 두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는데 하나는 동시대 생활양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건축물로 구체화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건축의 주제, 즉 프로그램에 따라 그 기능이 지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두가지 건축현상이 발생한다. 하나는 기능주의라는 매우 애매하지만 건축에서 매우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발생하고, 또다른 하나는 건축 프로그램에 따라 독특한 건물 유형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건축은 다른 예술분야와는 달리 기능에 의해 형태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게 된다. 물론 미스 반데 로에나 현대의 하이테크 건축가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간을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건축가들에게 프로그램은 디자인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열쇠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건축의 각 유형들은 독특한 기능들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1960년에서 1990년까지 한국에서 지어진 수많은 건물들에서 각각의 유형들이 갖는 형태적, 공간적 특징들이 눈에 띈다. 미술관의 경우 전시실과 사람 이동의 체계화라는 측면이 강조된다. 즉 전시실의 기능적 형태, 동선체계의 구축, 전시기능과 이동공간의 상호관계가 건축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종교건축은 성스런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의 구분을 통해 전이공간이 디자인의 핵심개념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배공간에 대한 빛의 처리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학교건축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유니트의 결합과 외부공간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나,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 그런지 뛰어난 작품이 드물었다. 물론 몇몇 대학

캠퍼스와 시설들은 예외지만 말이다. 병원건축의 경우 복잡한 기능의 분리와 상호관계설정이 중시되어 조형적인 면 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스포츠 시설은 대규모 공간확보를 위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가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막구조와 스페이스 프레임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 사무소건축의 경우 서비스 시설과 서비스 받는 시설의 관계, 입면의 구성, 도시적 맥락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국의 건축가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건축역사의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번째로 건축은 항상 다른 건물, 혹은 주위 환경물 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항상 도시적 맥락을 가지고 그에 따른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건축이 도시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체면서 동시에 도시는 건축의 설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축과 도시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1970년대 유형학이라는 방법론을 낳았고, 이것을 통해 건축이 도시에 조화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건축이 가지는 사회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건축과 경제, 삶의 방식, 권력, 이데올로기와 관련된다. 익명의 다수를 위한 주거단지는 이런 면을 단적으로 잘 보여 준다.

이상에서 건축만이 가지는 본원적 가치들을 언급했는데 이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계 모든 건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런 요소들이 각 시대의 독특한 건축을 발생시키기 위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작용하느냐이다. 또 건축가들이 어떤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자신의 작품세계를 형성해 나갔느냐이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을 작동케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이었느냐도 중요한 관건이 된다. 즉 건축이 만들어지도록 추진시키는 동력이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가 그 시대의 건축의 지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 가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굴절되고, 강조되고, 접합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점들이 명확해질 때 우리의 건축역사는 보다 분명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